

64가36/84. 4월 3

22대

한국교회 새 세기와 이스라엘의 희년정신

박 영 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장

“한국교회 새 세기의 의미는
한국교회가 고난의 역사 속
에서 민족의 아픔을 나누며
죽음과 생명의 기로에 처해
있는 인간세계 전체에 대한
책임에서 출발해야 한다.”

19 84년은 한국교회가 한 세기^한
달으며 또한 세기를 여는
해이다. 교계에서는 이 해를 뜻있
게 보내기 위해 많은 사업과 행
사를 계획하고 그 준비와 진행에
바쁘다.

교회여성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러 차례에 걸친 모임을 통해 지
난 100년을 돌아 보며 새 세기를
전망하는 일에 여념이 없다.

한국교회 100년이 천주교의 200
년과 서구의 오랜 교회역사에 비
하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것은 오랜^{오랜} 세월의 길
이로서 비교할 때 그렇다. 그러나

“인간사회의 어둡고 불의한 자들과 더불어 이름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일생을 바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곧 예수의 부활을 실천하는 성도들입니다.”

기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진리와 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만이 살게 된다는 생명의 법,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정함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 지는 삶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중심의 이타적 삶이 다시 생기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육은 죽고 공적으로 진리로 거듭나서 작고 큰 사적 공적인 생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들고 오지를 찾아 일생을 바친 초대 선교역사의 전도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사회의 어둡고 불우한 자들과 더불어 이름없이

이 빛도 없이 숨어서 일생을 바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곧 예수의 부활을 실천하는 상급받을 성도들입니다. “가서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 제절을 맞이하여 세속의 악습과 풍조를 따르지 말고, 불의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의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정직하게 의로 살아갑시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 말고, 죽음 이후의 부활영생을 믿고 산 소망을 소유합시다. 그리고 모든 인생 여정에서 작고 큰 일, 사적 그리고 공적인 일에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재현하면서 살아가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승리자가 되심같이 우리들도 세상을 이겨 승리자가 됩시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승리자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영생의 산 소망을 지닌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아멘 *

100년이라는 하나의 큰 시간의 매듭을 하나의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는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도 있을 수 없다.

한 해가 저물 때 사람들은 초조해 하기 마련이다. 그 해에 저지른 많은 것들에 얼켜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새해를 기다린다. 그것은 새해가 새 출발의 계기를 가져다 주겠기에 말이다. 마치 새로운 여명이기라도 한 듯이 많은 다짐도, 희망도 걸고 불안과 기대를 안고 맞이한다.

사람들이 하나의 해를 맞이하는 일에도 그럴진대 한국교회가 100년이라는 큰 세월을 보내며 맞이하는 일이 예사로운 수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축제분위기로 이 중요한 때를 보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 스라엘 민족은 2500여 년전에 국권을 상실하고 수백대를 나라없이 온세계에 흩어져 방황하며 온갖 고초와 멸시를 받으며 사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본래의 풍습도, 언어도 잃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멸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의 국가공동체의식이 투철함에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구약경전에 의거한 야훼신앙에 의해서라고 한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거나 한 주에 한 번씩 모이는 회당에서 다져진 정신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욥키푸로”라는 대속죄일을 해마다 지킨다고 한다. “욥”이란 “날”이고 “키푸로”란 “값는다” 또는 “변상한다”라고 한다. 이 날은 공휴일로서 금식과 기도로서 정중하게 지낸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값을 것과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다 해결하는 것이 관습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백화점이 일 년의 이익금 중에서 한 부분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인데 일년동안의 상거래를 통해 알게 모르게 저지른 그들의 잘못을 보상하는 뜻에서란다.

이러한 관습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해마다의 속죄의 의식에 준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레위기(25:1~19)에 보면 안식년에 관한 법이 있다. 또한 일곱 번째 안식년에 속죄일의 마지막날부터 시작해서 죄를 다 용서받은 후에 거룩한 해로 정하고 선포하

는 회년에 관한 법이 있다. 회년에는 종살이하든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팔았던 토지를 다시 찾고 땅을 쉬게 하므로 자연도 은혜를 입게 하며 일꾼도 쉬게 한다. 이것은 땅의 모든 것에 해방을 가져다 주는 엄청난 은혜의 선포이다.

회년의 선포는 역사적 과정을 중지시키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조건 밑에서 재출발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낡은 것의 악순환을 정지시키고 누적된 모순에서의 해방이라는 것이다. 음력에서의 윤달이 달력의 차질을 조절해 주듯이 회년의 은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뒤틀려진 관계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무조건적 경지의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키고 설킨 과거에서 풀려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날의 한맺힌 자욱을 그대로 덮어두거나 외면하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또한 결코 추상적이거나 형식적인 영혼구원만이 아니다.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자유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누가복음(4:18-19)에서 예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회년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라고 한다. 그리스도가 오심은 바로 포로된 자, 눌린 자, 눌린 자 그리고 가난에 신음하는 자에게 해방을 주려고 함이라고 한다. 예수의 메시지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고 그것은 “회년의 선포”라는 것이다. 모든 것이 제 있을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다.

**회년의 선포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조건
밑에서 재출발을 하게……**

한 국교회 100년 맞이는 한국교회의 두번째의 회년맞이이다. 한국교회가 계획한 모든 기념 사업과 행사에 회년정신이 얼마나 반영되었나?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를 놓쳐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회년은 속죄일이 끝난 다음날부터라고 한다. 그것은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교회

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우리는 교회의 분열과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한 것과 받은 축복을 소외된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자기 확장에만 급급한 것과 세상에 대한 올바른 증거와 봉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의 논리를 교회 안에까지 판을 치게 한 것은 물론 남녀노소의 차별 등의 교회 내의 비민주성을 회개하지 않고서 한국교회가 회년을 맞이할 수는 없다. 회개란 가던 길을 멈추고 변혁하는 일이 아닌가! 이러한 교회의 잘못은 필연은 아니었다. 뻔히 잘못된 것으로 알면서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대로 내버려둔 것이었다. 이러한 낡은 시대의 유물들에 제동이 걸려야 한다. 회년정신으로 한국교회 100년을 맞이하는 그 일이 바로 제동의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 여성들은 교회역사의 잘못됨에 주역은 아니었다. 그러나 방조한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을 망각한 상태에서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어찌서 한국교회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여성이 그러한 오류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뼈속깊이 박혀있는 잘 길

드려진 노예근성이 우리를 눌린 자, 눈먼 자, 병어리, 그리고 귀머거리로 남게 한 것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가 많은 것을 나만을 위해 움켜쥐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난해지며 불의를 보고도 못본체 이웃의 부르짖음을 듣고도 외면하고 그들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실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만든 낡은 옷들을 먼저 벗어 던져야 한다. 일신의 안일함, 무조건의 복종, 무비판성, 일상에 사로잡힘, 통념에 매임,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등의 낡은 옷들을! 그리고 바울이 말한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간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죽음의 선상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역사의 흐름을 분간하여야 한다.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물질만능주의, 최고 최대, 제일을 지상으로 여기는 팽창 또는 맘모스주의, 남이야 어떠하든 나만이면 된다는 극도의 이기주의, 힘이면 다라는 괴물의 횡포, 군

비확장에의 전력^후구 등은 인류를 전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가진 자와 강자의 논리가 오늘날 교회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지를 앓는가?

교 회여성제 일각에서 이러한 역사의 추세를 겪기 위해 새로운 움직임이 움터 오고 있다. 생명운동, 생명과 평화운동 또는 평화와 정의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태도에 일대변혁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함께 사는 세계를 위해 기득권과 특혜의 포기과 성장의 한계를 인식한 무한정의 물질소비를 최저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하는 생활이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자기의 생활수준을 낮추거나 자기를 꺾는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삶의 양식은 개인, 개교회, 개국가 수준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함께라는 원칙에서 전개되어야 우리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여성들은 지금까지 치욕으로 여기고 있었던 억눌림과 한의 오랜 역사를 통해 자기 것으로 익혀온 소위 말하는 여성성(女性性), 곧 모성성이(母性性) 바

로 오늘의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의 문화」를 창출해 내는 새로운 가치라고 깨닫게 되었다.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감싸며, 굶은 일을 말없이 해내며, 양보하며, 지며, 아끼며, 생명을 낳아 보호하며 양육하며 귀히 여기고 마침내는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 모성성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아닌가! 남은 문제는 내혈육을 위해서 또는 내 교회를 위해서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모성애의 발휘는 인간전체를 위해서라고 할 때 즉 「모성애의 사회화(社會化)」를 이룩할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교회 새 세기의 의미는 한국교회가 고난의 역사 속에서 민족의 아픔을 나누며 죽음과 생명의 기로에 처해 있는 인간세계 전체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자기 보호본능과 약소민족이라는 등의 통념에서 해방되는 것에서 출발이 될 때 더욱 커짐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출발에 앞장설 수 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교회여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